경기도 복지발전소 경기복지재단

vol.82

G-Welfare Weekly Report

경기복지재단 |발행인(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배수용) |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3층 | 031-267-9368 |http://ggwf.gg.go.kr | 2016.12.1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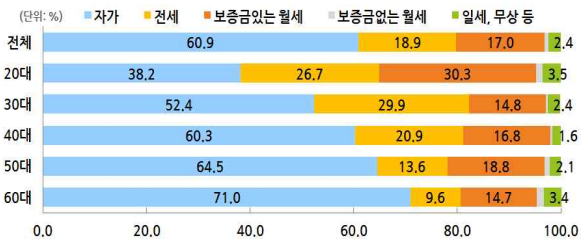
01 중앙정부 정책동향

위기의 50대, 현황 진단 (II)

01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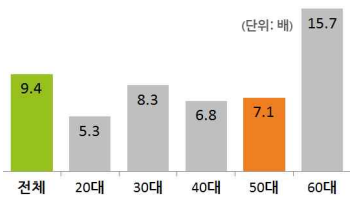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대는 50대*로 '사면초가(四面楚歌) 세대',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'낀세대' 등으로 불리우며 생활 전반의 곤란 상황에 직면
- 50대 경기도민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소득과 일자리에 대한 진단**에 이어 주거영역의 생활실태***를 30대, 40대, 50대, 60대로 구분, 비교·분석함
- 주거점유형태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거주자가 증가하여 거주여건이 개선되는 반면, 월세거주자 또한 높아져 주거영역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남
  - 자가거주자 비율은 60.9%****로 연령별로 60대가 71.0%로 가장 높고, 50대 64.5%, 40대 60.3% 등 평균 수준이나 30대는 52.4%로 낮음
  - 월세거주자는 전체 17.8%이나 50대는 19.8%로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음. 보증금여부에 따라 분석하면 보증금이 있는 50대 월세거주는 18.8%로 전체 17.0%보다 높고, 다른 연령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
    - '보증금이 있는 월세'와 같은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있는 50대는 1인 가구(44.0%)이거나 이혼(42.4%)이나 별거(47.5%)인 경우가 대부분
  - 50대의 소득수준이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직이 시작되는 시기 등 양극단으로 나눠진 상황이 주거점유형태에서도 발견됨

〈연령별 주거점유형태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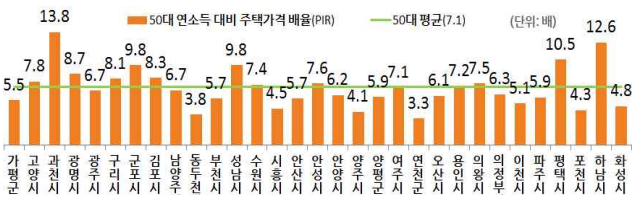


- 자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(PIR)로 보면 9.4배이며, 50대는 7.1배로 60대(15.7배)의 절반 수준이지만, 40대(6.8배)보다 높음
  - 50대 주택가격은 2억6천6백만 원으로 40대(2억8천5백만 원)보다 낮음에도 주거비부담이 더 높은 것은 50대 소득이 낮기 때문
  - 시군별로 50대의 연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보면 과천시가 13.8배로 가장 높고, 연천군이 3.3배로 가장 낮아 지역의 지가(地價) 및 소득수준이 그대로 반영

〈연령별 주거비 부담 정도〉



〈시군별 50대의 주거비 부담 정도〉



*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16). 『2015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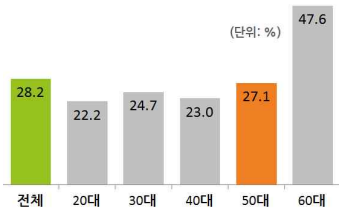
**주간복지동향 80호 참조

***경기복지재단(2016). 『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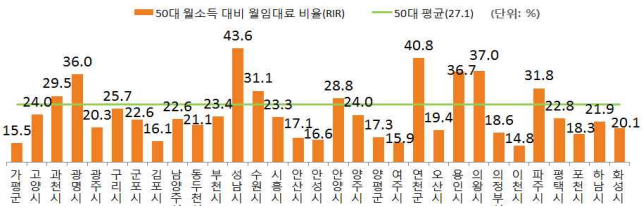
****19세~69세에 한정한 분석으로 상기 실태조사 대상자 전체를 분석한 결과와 다름

-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(RIR)로 보면 28.2%이며, 50대는 27%로 60대(47.6%)보다는 부담이 적지만, 40대(23.0%)나 30대(24.7%)에 비해 높은 수준
  - 50대가 부담하는 월임대료는 53만원으로 30대 77만원, 40대 66만원보다 적지만, 월 소득이 30대와 40대에 비해 적어 주거비 부담비율은 높게 나타남
  - 무엇보다도 월세 등 주거비가 가장 큰 지출항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대의 경우 17.5%로 40대 10.4%, 30대 13.7%보다 높아 주거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항목임을 알 수 있음
    · 최대지출항목에서 부모나 자녀 등 가구원의 용돈이 가장 큰 지출이라고 응답한 50대가 0.7%로 40대(0.6%)나 30대(0.3%)보다 높아 부모와 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'낀세대' 임을 확인
  - 주택자금대출 등 부채상환이 가장 큰 지출항목이라는 응답은 50대가 4.1%로 40대(4.3%)나 30대(6.4%)에 비해 낮음. 낮은 부채비율로 인해 주택을 노후대책으로 삼고 있다는 비율은 30대(56.7%)와 40대(62.1%)에 비해 높게 나타남
  - 시군별로 50대의 월임대료 부담을 보면 성남시가 43.6%가 가장 크고, 연천군의 경우 자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장 낮은 반면,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음

〈연령별 월임대료 부담 비중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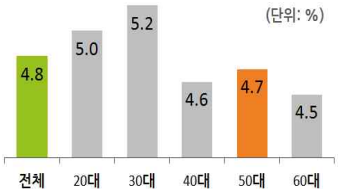
〈시군별 50대 월임대료 부담 비중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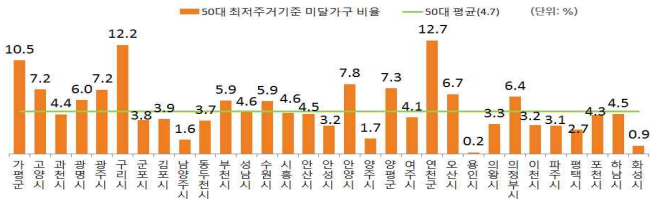
- 50대의 쾌적한 주거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'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'를 분석한 결과 4.7%로 전체 4.8%보다는 낮지만 60대(4.5%)나 40대(4.8%)보다 높음
  - 최소한의 기준은 설비, 면적, 방수 등을 기준으로 하며, 1개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로 간주
  - 50대의 경우 면적, 방수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20대~40대에 비해 낮으나, 설비기준*미달가구비율은 60대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남
  - 시군별로 50대의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은 연천군, 구리시, 가평군 등의 순으로 나타남

*설비기준 : 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활장실 및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

〈연령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〉



〈시군별 50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〉



02 경기도 시사점

- 50대는 생애주기 중 소득발생기간이 감소하는 시기로 이에 따른 주거도 불안정하고 물리적 환경도 열악해지며,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
  - 50대 경기도민의 주거는 자가 비율이 가장 높지만, 월세 거주 비율도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임대료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고, 시군 간 격차도 3배 정도로 나타남
- 생애주기별 주거소비 특성에 부합하고, 가족구성의 변화에 맞는 복지지원정책 연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
  - 50대는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 관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격이 싼 주택이나 월세형태의 주택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40%를 넘는 상황
  - 불안정한 주거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상을 50대로 낮추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, 1인 가구이면서 월세상태인 50대의 경제적 · 심리적 지지를 위한 코하우징 모델 개발

02 시·도/시·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경기도 50대 가구의 주거실태

올해 경기복지재단이 실시 중인 「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」 기초자료를 토대로 도내 31개 시군별 50대 경기도민의 주거실태를 비교

- 경기도민의 주거실태를 주거점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, 자가는 60대 · 전세는 30대 · 월세(보증금 有)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*
  - 상대적으로 주거안정성이 높은 자가거주 비율을 보면, 50대 가구의 자가비율은 64.5%로 60대 가구보다 6.5%p 적게 나타남
  - 반면 월세거주 비율은 18.8%로 60대 가구보다 4.1%p, 40대 가구보다 2%p 많게 나타나, 50대의 주거안정성이 타 연령층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

*경기복지재단 (2016)

- 50대 가구의 주거점유형태별 비중을 보면, 자가가구 비중은 농촌지역(양평 · 가평 · 연천)이 높고, 월세가구 비중은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남
  - 양평에 거주하는 50대가구주 가구는 82.3%가 자가거주인 반면 구리 · 안산의 경우 각 44.7%, 45.6%만이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, 주거안정성 낮음
  - 자가나 전세에 비해 주거안정성이 낮은 월세이하 가구**의 비중은 안산이 38%로 가장 높고, 파주 · 오산 · 의정부 · 구리도 27~28%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

**월세이하 가구: 보증금 있는 월세, 보증금 없는 월세, 일세, 무상, 기타

〈표〉 50대가구주 가구 주거점유형태 비중

(단위: %)

	자가	전세	월세	기타***		자가	전세	월세	기타
경 기	**64.5**	**13.6**	**18.8**	**3.1**	안 성	72.0	12.1	9.3	6.5
가 평	78.0	5.2	9.9	6.9	안 양	63.6	13.9	19.4	3.1
고 양	62.0	15.5	19.1	3.4	양 주	72.2	6.9	18.8	2.2
과 천	59.1	22.4	14.9	3.7	양 평	82.3	8.3	4.5	4.9
광 명	69.9	11.4	15.0	3.7	여 주	74.5	4.8	13.2	7.6
광 주	63.2	15.5	16.1	5.2	연 천	78.0	3.2	14.6	4.2
구 리	44.7	28.3	20.8	6.3	오 산	61.0	11.2	25.3	2.5
군 포	74.1	11.8	12.9	1.2	용 인	71.9	12.3	12.5	3.4
김 포	64.5	6.1	23.5	5.9	의 왕	61.7	12.5	24.7	1.0
남양주	68.3	13.7	17.5	0.5	의정부	61.2	11.5	21.8	5.5
동두천	53.5	17.5	20.8	8.2	이 천	70.5	9.1	12.9	7.5
부 천	69.3	7.6	20.9	2.2	파 주	62.2	9.8	24.2	3.8
성 남	54.5	21.6	22.9	1.0	평 택	70.3	11.5	12.9	5.3
수 원	62.5	18.7	16.5	2.3	포 천	80.4	5.7	10.7	3.2
시 흥	68.2	9.7	19.5	2.7	하 남	64.0	15.4	16.7	3.9
안 산	45.6	16.4	37.7	0.3	화 성	72.3	11.3	12.1	4.3

***기타: 보증금 없는 월세·일세·무상

- 도내 31개 시군 모두 자가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, 세부유형별 비중은 천차만별임. 특히 안산·구리는 타 시군보다 자가 비중은 낮고 월세이하 비중은 높게 나타남
  - 안산의 경우 50대가구주 가구의 자가 비중이 45.6%로 가장 낮고, 월세이하 비중은 38%로 가장 높아 주거안정성 면에서 가장 취약
- 주거 불안정이 대출이자나 월세 등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, 주거안정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가구의 빈곤위험에 더욱 기민한 대처 필요

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사업명	주요내용
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II 약정식	• 일 시 : 2016. 12. 24.(토) 13:00~15:00 • 장 소 :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 • 내 용 : 청년통장II 사업안내 및 약정체결 • 참 석 : 청년통장 선정자 및 관계자 등 약 550명

03 FACT CHECK

여성정치 시대, 위기 맞았나?

-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빚어진 탄핵정국과 현직대통령의 위기에 대해 '여성리더십, 나아가 여성정치의 실패'로 해석하는 발언이나 보도가 확산되고 있음*
  - 지난달 18일 LA타임스가 "여성대통령이 오히려 여권신장의 걸림돌이 되었다"고 논평한 것에 이어 21일 뉴욕타임스도 "이번을 계기로 여성정치인에 대한 저항이 커질 것"이라 보도
- 이러한 현상들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'준비된 여성대통령' 구호 등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해온데다, 실제로 헌정이후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된 그간의 맥락에서 기인
- 그러나 한 사람의 정치인을 단순히 생물학적 성에 따라 '여성정치인'으로 칭하고 그 정치를 '여성정치'로 판단하는 것은 성 차별적 사고로 확대될 위험
  - 과거 한국사회가 남성정치인의 실정(失政)을 '남성정치의 실패'가 아닌 '한 정치인의 실패'로 평가했던 것에 비해 이번 사태는 또 다른 양상(성 차별적 양상)을 보임
-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정치의 성패여부는 '젠더 불균형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얼마나 수행하였는가?'를 통해서만 판단 가능할 것임
  -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는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**, 성별 임금 격차도 10년째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바,
- 향후 정치지향은 정치인의 생물학적 성과 관련지은 '남성정치vs.여성정치'의 이분법 대신 다양한 영역에서 실존하는 성 격차 문제를 줄이는 진정한 '젠더정치'에 맞춰질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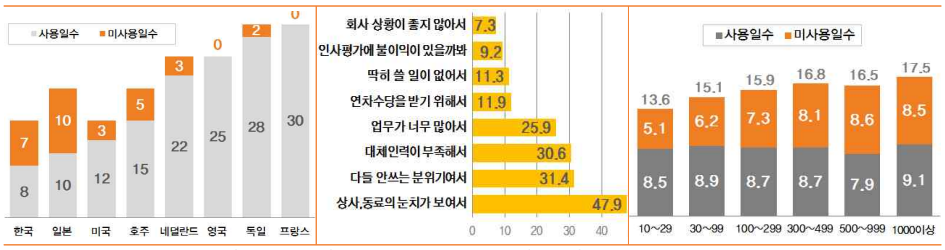
*'최순실 게이트는 '여성 리더십 실패?' 성차별 발언 논란', 한국일보, '16.11.3. 등

**세계경제포럼, 2016 세계 성 격차 보고서

04 통계로 보는 복지

연차휴가 얼마나 쓰셨나요? (직장인 연차휴가 사용 실태)

주요국 연차휴가 사용실태 (2016) 연차휴가 미사용의 주된 이유 (2014) 사업장규모별 연차 사용현황 (2013)



자료: 국회입법조사처, 2016 (왼쪽, 오른쪽) / 취업포털 사람인, 2014(가운데)

- 우리나라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5일*로, 미국 · 캐나다와 더불어 부여일수가 가장 짧은 국가이며, 그 중 사용일수는 8일(53.3%)에 불과하여 일본(50%)에 이어 사용률도 가장 저조
  - 반면 네덜란드 · 영국 · 독일 · 프랑스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25~30일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가깝고, 미사용일수도 0~3일에 불과
  - 사업장 규모별로는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부여일수도 증가하나, 실제 사용일수는 유사함
-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'상사 · 동료의 눈치'가 47.9%로 가장 많고 '다들 쓰지 않는 분위기(31.4%)', '대체인력 부족(30.6%)' 순임
  - 반면 인사담당자들은 연차휴가 미사용의 주된 이유로 '근로자들이 추가수입을 원하기 때문(38.2%)'을 가장 많이 꼽아**, 연차사용에 대해 근로자와 상당한 견해차이 존재

*중위값 기준

**고용노동부 (2013)